

# ‘제2의 이종범’·‘리틀 김하성’ “이젠 다치지 않겠다”

〈김도영〉

〈윤도현〉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부상’이라는 가시밭길을 걷는 ‘친구’ 김도영과 윤도현이 내야 중심을 꿈꾼다.

KIA 타이거즈는 호주 캔버라에서 2024시즌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처음 호주에서 진행된 캠프가 자신의 첫 해외 캠프였던 이들도 있다. KIA의 내야 ‘유망주’ 윤도현도 그중 한 명이다.

윤도현은 2022시즌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3년 차 선수. 동성고를 대표하던 김도영과 함께 광주 아마 야구를 호령했던 선수이기도 하다.

입단 당시에는 김도영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한화 문동주와 ‘마지막 1차지명’ 선수 경쟁을 벌였던 만큼 김도영은 뜨거운 이름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022년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 이곳에서는 최지민에 이어 2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윤도현이 조명을 받았다.

당시 코로나 여파로 김도영의 캠프 참가가 불발되면서 윤도현은 신인 유일의 야수로 선배들과 훈련을 소화했다.

나이는 막내였지만 매서운 실력은 선배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하성을 연상시키는 타격폼으로 무시무시한 타구를 날리면서 이내 윤도현은 화제의 인물이 됐다.

‘제2의 이종범’과 ‘리틀 김하성’으로 불리며 남다른 기대감 속에 막을 연 두 선수의 프로 무대.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부상’이

3년차 김도영·윤도현 ‘부상’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즌 ‘홀홀’ 김 “일본 캠프서 타격 시작” 윤 “타격·주루 자신…수비 집중”

두 선수의 발목을 잡았다.

윤도현은 2022년 시범경기에서 수비 도중 큰 부상을 입었다. 슬라이딩 캐치를 하다가 공을 쫓던 유격수 김도영의 발에 부딪히면서 손을 접질렸고, 이 과정에서 손등뼈가 골절됐다. 윤도현의 프로 첫 시즌은 재활을 하다가 끝났다.

이를 악문 윤도현은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5월 28일 LG와의 경기를 통해 프로 데뷔전도 치렀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윤도현은 실책과 삼진 하나씩 남기고 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다.

고졸 루키 처음으로 시범경기 타격 1위를 찍은 김도영은 프로 첫해 103경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확실한 자리 없이 마음 고생을 했다. 두 번째 시즌에는 3루수로 인상적인 출발을 했지만,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발가락 골절 부상을 입었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복귀한 김도영은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했지만, 시즌이 끝난 후 다시 한번 아찔한 부상 순간을 맞았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로 나선 그는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좌측 엄지 중수 지절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견열골절 진단을 받은 그는 인대 봉합술을 받아야 했다.

남다른 재능에도 지난 2년 마음과 다른 시간을 보낸 두 친구가 의기투합했다. 김도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호주 캠프에 참가했고, 두 선수는 룸메이트가 돼 함께 칼을 갈았다. 관리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됐던 김도영의 타격 준비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 본격

회된다.

경쟁자이자 동반자인 두 선수의 움직임은 오키나와 캠프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윤도현은 “처음 캠프 참여했을 때보다 어색함이 없다. 확실히 동기랑 방을 같이 쓰니까 편하다”며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수비 안 한 지 오래돼서 어색하기도 해서 수비를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다. 타격에서는 정립이 됐다. 타격도 오랜만이지만 편한 것도 같고, 더 빨리 페이스가 올라온 것 같다. 주루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자신감이 넘치지만 역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부상’이다. 지독한 ‘운동병레’로 소문난 윤도현은 ‘넘치는 것은 독이 된다’는 것을 배운 만큼 천천히 걸어가겠다는 각오다.

윤도현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무리시켰던 것 같다. 휴식, 잠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있다”며 “아직은 밖에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은 운동보다 힘들다”고 웃었다.

김도영도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김도영은 ‘이상 무’를 외쳤지만 코칭스태프는 호주 캠프에서 ‘방방이’를 맡기지 않았다.

김도영은 “이제 다칠 일 없다고 장담한다”며 “형우 선배님이 시즌 치르면서 쉬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공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았다. 찬호 형도 특타를 하려고 하면 쉬어가라고 했었는데 알고도 불안해서 훈련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공을 더 친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라서 이제는 조절하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호주 캔버라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윤도현(왼쪽)과 김도영이 밝은 표정으로 주루훈련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KIA 홈경기 시즌권 판매... 20~30% 할인

KIA 타이거즈가 2024년 안방에서 열리는 홈경기를 대상으로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BO 정규 리그 73경기를 지정된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중앙 테이블석(2·3인)과 챔피언석, 서프라이즈석, K9/K8/K5석을 대상으로 한다.

정상이 대비 20~30% 할인이 적용되면서 중앙 테이블 2인석은 495만2000원, 3인석은 696만3750원, 챔피언석은 259만5000원, 서프라이즈석은 128만3250원에 판매한다.

또 K9석, K8석, K5석의 판매 가격은 각각 81만9000원, 75만6800원, 61만1100원이다.

시즌권 재구매자를 대상으로 26일 오전 11시부터 29일까지 1차 판매가 이뤄진다. 신규 구매자는

3월 4일 오전 11시부터 11일까지 시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고, 1인 1좌석으로 제한된다. 법인 고객은 티켓링크 플랫폼을 통해 시즌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 입장료는 지난해와 같다. 단 스카이박스 등 실내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면서 1인당 가격이 주중 5천원, 주말 1만원 인상돼 10인실 기준 주중 65만원, 주말 70만원에 판매한다.

KIA는 2024 KBO 시범경기 입장권 판매도 진행한다.

KIA는 3월 16~17일 KT, 18~19일 삼성을 상대로 홈에서 시범경기 4경기를 소화한다. 입장권 판

매가 이뤄지는 경기는 토·일요일에 진행되는 KT전이다.

경기 5일 전인 3월 11일 오전 11시 입장권 예매가 시작된다.

예매는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판매는 경기 개시 1시간 30분 전부터 1~3 매표소에서 이뤄진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5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으로 3층 전 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챔피언석, 테이블석 등 특별석은 성인·청소년 구분 없이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초·중·고생,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받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평일에는 챔피언석, 중앙테이블석과 3루 일반석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좌석은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미국서 못 채운 100승, 한국서 채운다



류현진(오른쪽)이 22일 한화 이글스와 8년 최대 총액 170억원에 계약한 뒤 박찬혁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현진, 12년 만에 한화 복귀...8년 최대 170억 계약 메이저리그 78승으로 마감... ‘KBO 100승’ 2승 남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로 돌아온다.

한화 이글스는 “류현진과 계약 기간 8년, 최대 170억원에 계약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로써 2012시즌이 끝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직행한 류현진은 11시즌 동안 ‘빅리거’로 생활한 뒤 12년 만에 KBO리그로 복귀하게 됐다.

한화는 KBO리그 역대 KBO리그 최고액인 170억원으로 류현진을 예우했다.

류현진은 양의지가 2023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와 계약한 4+2년 최대 152억원의 최고 총액을 1년 만에 경신했다. 계약 조건에는 기간 중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옵션 아웃도 포함됐다.

현재 적용 중인 샬러리캡(연봉총상한제)과 류현진이 행사할 수 있는 KBO리그 FA로서의 권리를 두루 고려해 4년이 아닌 8년 계약 기간과 총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구단을 통해 “KBO리그 최고 대우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한화는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고마운 구단이다. 메이저리그 진출 때부터 꼭 한화로 돌아와 보답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라고 했다.

류현진은 2012시즌이 끝난 뒤 한화의 동의를 구해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메이저리그에도 전향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간 총액 3600만달러에 계약했다. 한화는 당시 환율로 약 280억원(2573만7737달러33센트)의 이적료를 받았다.

빅리거에서 류현진은 186경기에 등판해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2019년), 올스타전 선발 등판(2019년) 등 코리안 빅리거 최초 기록도 세웠다.

빅리거에서 세 번의 수술을 받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 류현진은 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어깨와 팔꿈치 과사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인 2019년에 개인 최고 성적(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을 올렸고, “30대 중반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투수가 재기에 성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에도 류현진은 지난해 8월 마운드에 복귀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계약(2020~2023년 총 8000만 달러)이 만료된 류현진은 한화 복귀와 빅리거 잔류를 두고 고민했고, 결국 한화 복귀를 택했다. 애초 메이저리그 100승 달성을 열망했던 류현진은 ‘22승’을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류현진의 KBO리그 개인 통산 성적은 98승 5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80이다. /연합뉴스

## MLB 시범경기 23일 개막 내달 20~21일 ‘고척 시리즈’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가 2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린다.

다음달 20일과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MLB 서울 시리즈’를 통해 빅리거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하는 두 팀은 시범경기 역시 가장 먼저 치른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은 원래 자리인 유격수로 돌아와 시범경기 개막을 맞이한다.

팀 핵심 선수인 김하성에게 시범경기는 말 그대로 ‘몸을 푸는’ 무대라면, 올해 샌디에이고에 합류한 고우석(25)은 개막전 로스터에 올라가기 위한 경쟁의 장이다.

고우석은 지난해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4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 규모만 놓고 보면, 부상이나 심각한 부진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개막전 로스터 진입은 무난할 전망이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고우석을 마무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놓고 시범경기에서 본격적으로 구위를 점검할 참이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5일 시카고 컵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통해 첫선을 보인다.

이정후는 시범경기 개막전 역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빅리거 적응에 본격적인 첫발을 댄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24)은 25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통해 주전 2루수 경쟁에 나선다. /연합뉴스